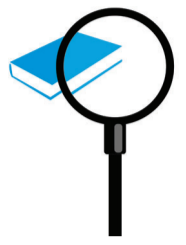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2026년 역사를 들여다 본다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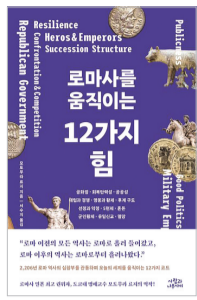
모토무라 로지 지음, 서수지 옮김

공화정, 회복탄력성, 공공성, 대립과 경쟁, 영웅과 황제, 후계 구도, 선정과 약정, 5현제, 혼돈, 군인황제, 유일신교, 멸망.

위에 열거한 것들은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키워드들이다. 로마는 세계 역사에 있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견고한 제국을 구축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흔히 역사가들이나 독자들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에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시련과 극복, 도전과 응전이 있었음이 전제돼 있다.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 들어갔고, 로마 이후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는 말이 주는 울림은 간단치 않다. 세계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을 비롯해 몽골제국, 이슬람 제



국 등 만만치 않은 제국이 등장했지만 로마 제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도쿄대 명예교수인 모토무라 로지가 펴낸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힘’은 2026년 로마의 역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일본 내 로마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저자는 지중해 학회상, JRA마사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세계사를 결정짓는 7가지 힘’, ‘로마제국 인물 열전’, ‘지중해 세계와 로마 제국’ 등을 발간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모두 12가지 코드로 로마사를 분석하는데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회복탄력성이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키워드를 저자는 로마인들이 지닌 대표적 자질로 본다. 패배와 치욕, 승리와 영광은 두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기원전 321년 삼니움족과의 카우디움 전투는 변곡점이 되었다. 이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로마군은 주저앉지 않았다. 절치부심의 시기를 보내며 새로운 집정관을 선출하고 군단을 재편성해 이후에는 삼니움군을 섬멸한다.

칸나에 전투도 마찬가지다. 당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했지만 다시 전력을 보강했다. 스키피오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한니발의 전법을 이식해 마침내 승리로 이끈 것이다.

눈길을 끄는 대표적인 코드는 공공성이다. 로마는 인류 최초로 공공성, 다름 아닌 공공개념을 도입했다. 국가를 비롯해 공공에 헌신한다는 자세는 귀족 외에도 평민들도 견지했다. 당대 경쟁국이었던 그리스나 페르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후일 공공성의 상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계 구도도 로마 흥성을 견인했던 주요 요인이다. 카이사르는 공화파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 젊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점찍었을까. 저자는 이를 이렇게 해석한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지닌 탁월한 ‘위정자의 자질’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평성대는 집권자의 선정을 비롯해 제반 요인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가능하다. 로마의 전성기는 5현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능했다. 네르바 황제는 군대의 살해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후계자 선택’을 위한 목적으로 5현제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로마는 제국이라는 반석 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우렐리우스의 사심이 담긴 후계자 지명은 현군시대의 종말을 앞당긴 패착이었다.

이밖에 위대한 영웅과 황제, 대립과 경쟁, 유일신교 등도 로마 번성기를 구가했던 요인들로 분석된다.

한편 저자는 “그리스 비극은 되풀이해서 ‘휴브리스(Hubris, 오만·교만)’가 비극의 원인이라고 가



사비니 여성이 로마인과 사비니인 사이에 끼어들어 필사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다비드 작품. <루브르 미술관 소장>

르친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대단하다’는 주장을 남발하면 휴브리스의 교훈을 거스르게 된다. 그러나 ‘세계사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로마사를 좌

표축으로 삼는다면 학습 효과가 달라지리라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사람과나무사이> 2만원 /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인에게 말 걸기

은희경 지음



“냉소적 태도, 냉소적 시선으로 세상을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거나 낙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제시하는 위로의 방식은 고독을 인정하라는 거였습니다. ‘고독의 연대’라는 표현도 쓴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거죠.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연스레 고독의 연대가 싹트는 거예요.”

오래 전 은희경 작가를 인터뷰했을 때, 작가가 했던 말이다. 은 작가는 등단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구어왔다.

‘새의 선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태연한 인생’ 등은 소설적 재미와 인간의 본성 등을 생각하게 했던 작품들이다.

이번에 은 작가가 첫 소설집 ‘타인에게 말 걸기’를 27년 만에 새롭게 발간했다. 지난 해까지 100쇄를 기록한 ‘새의 선물’과 함께 오랜 시간 꾸준히 읽히며 회자되는 소설 집이다.

거의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읽히고 유미미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모티는 무엇일까. 작가는 개정판에서 “이 책 안에 들어 있는, 우리가 타인이라는 존재에게 말을 거는 데 서툴거나 폭력적이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작품집에는 모두 9편이 수록돼 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작품 순서다. ‘타인에게 말 걸기’와 ‘빈처’ 등을 작품의 앞쪽에 배치해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는 점이다. 맨 마지막에는 신춘문에 등단작인 ‘이중주’를 배치했다. 남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는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적인 운기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다. <문학동네> 1만7800원 /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진석의 말 2024 일력

최진석 지음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일에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태도가 무너지며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편찬)

노자, 장자 강의로 인문학 열풍을 일으킨 철학자 최진석의 대표 저서와 강연에서 가려 뽑아 366일의 문장을 담아낸 ‘최진석의 말 2024 일력’이 나왔다. 1년 365일 오늘을 도모해 새로운 내일(+1)로 건너가는 366일의 문장들이다.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한 장씩 넘겨 보는 탁상 일력 형태로, 2024년 하루하루를 의미있고 소중하게 맞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이다. 요일과 국경일, 주요 공휴일, 주요 음력 정보 등을 함께 표기했으며, 스프링으로 묶어 넘기기 쉽도록 구성했다. 일력에는 그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 저서를 내며 인문학과 철학을 하는 진정한 의미로 이야기해 온 작가의 생각과 시선을 한 데 모았다.

매달의 주제는 자신의 삶과 시대에 책임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월 나를 나이게 하는 힘인 ‘질문’, 2월 내 삶의 주인으로 존재하기 ‘독립’부터 5월 생각의 높이 ‘시선’, 6월 지속하는 태도 ‘소명’, 8월 텅 빈 마음으로 ‘무상’, 10월 시대에 대한 성실성 ‘책임’, 11월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 ‘경계’, 12월 참된 나를 찾아가는 ‘기분’까지 매달의 키워드를 통해 나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말들을 채워넣었다.

“헤르만 헤세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는 말을 오래 모셨습니다. 건너가는 지금의 나 이상을 꿈꾸는 나 자신의 수행방식입니다. 나는 건너가기의 출발선에 다시 서면서, 오늘도 우선 나 자신을 공경해합니다. 나 자신을 공경해하던 바로 그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공리> 2만2000원 /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인류세 엑소더스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 파울 요제프 크리치언이 창시한 용어 ‘인류세(人類世)’는 인류 영향으로 변화하는 지구환경과 지질 시대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지구에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고 플라스틱 등 인공물이 증가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기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인류세 개념에 전착하면서 멸종의 기로에 놓인 인류에게 경각심을 불러넣는 한 권의 생존 르포르타주가 발간됐다. 가이아 빈스가 지은 ‘인류세 엑소더스’가 바로 그것.

20세기 이래 환경문제를 설파하는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저자는 이미 멸종한 공룡과 인류의 행보를 겹쳐 보면서, 그 해답을 평이한 환경보호나 재활용 등만이 아닌 이주(엑소더스·Exodus)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이주는 우연이든 의도든 세계를 재구성할 것이다. 의도적인 편이 훨씬 낫다. 온도가 섭씨 3-4도 상승한 세계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에는 극북 지역에 거대한 새 도시를 건설하는 동시에 열대의 넓은 면적을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의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책은 환경문제를 말하지만 인류학적 논의점들도 개진한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의 자녀가 기후 난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규모의 인원이 한 번에 이주하는 노력을 전 인류가 경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가 직면하게 될 존재론적 변화 앞에서 문화, 기술, 자본이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력한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시킨다.

<공출판> 2만2000원 /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